

‘틀림’을 ‘다름’으로 바꾸어 나가자

(『원더』를 읽고)

김하늘

평소에 봉사 활동에 관심이 많아, 특히 장애인 시설에 봉사 활동을 다니시는 엄마가 팔라시오의 소설 『원더』를 읽어 보라고 추천해 주셨다. 장애인에 관한 소설이었다. 처음에는 재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인내를 갖고 읽으니 재미를 느끼는 점이 많았다.

주인공은 선천적 안면 기형을 가진 10살 소년 어기스트다. 그리고 어기스트를 포함해 여섯 명의 인물들 이야기로 풀어 나가고 있다. 소설을 읽으면서 나 자신에게 조금 놀랐다. 평소에 편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는 편견으로 차별을 하고 있었다.

휠체어를 탄 사람이 옆을 지나가거나 다운 증후군으로 보이는 사람을 보면, 슬쩍슬쩍 훑쳐봤던 경험이 떠올랐다. 의도하지 않고도 상처를 줄 수 있겠단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든다. 사람은 그저 사람일 뿐이다. 많은 사람은 못생기고 뚱뚱한 사람보다는 예쁘고 멋진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좋아한다. 남녀노소 누구든, 심지어 국적에 상관없이…….

물론 나도 그렇다. 하지만 그들이 놀림을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안다. 놀림을 받는 외로운 사람들과 장애인들은 일부러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 어기스트는 헬멧 속에 숨어 살다가 세상을 마주하였다. 참 많이 두려웠을 텐데 어기스트의 용기와 가족들의 도움으로 한 발 나아갈 수 있었다. 처음에 친구들은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괴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점점 자신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나중에는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해졌다. 시간이 더 지난 후에는 겉으로만 친절할 것이 아니라 진심을 주고받는 친구로서 대하게 되었다.

친구들의 시선이 점차 바뀌어서 모두 다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다. 어기스트가 보청기를 숲속에서 잃어버렸을 때 반 친구들이 같이 도와주는 장면, 이보다 더한 감동이 또 있을까. 정말 좋은 친구들이다. 나도 그런 친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 년 전에 교회 모임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오빠를 만났다. 나이도 10살이나 많고 키도 크고 덩치도 크다. 무엇보다 목소리도 큰데, 교회에 가면 심하게 반가워서 조금 무서운 마음이 있었다. 함께 해 보니 무서운 마음보다는 친구처럼 대해 주는 오빠에게 마음이 조금 열렸다. 오빠는 장난감도 보여 주기도 하고 어느 날은 선물도 주면서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그때는 그게 마냥 좋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오빠에게 친구가 필요했던 게 아니었을까.

조금 다를 뿐 큰 차이는 없다. 어기스트에게 친구들이 진정한 우정을 베푸는 것처럼 오빠도 거리낌 없이 대할 수 있는 친구를 그리워했을 것이다. 다음에 또 만나게 된다면 먼저 친절하게 다가가겠다고 다짐해 보았다.

작년 3월 2일 4학년이 되었다. 담임 선생님은 온화하시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잘 보살펴 주시는 분이셨다. 며칠 후 반장 선거가 있었고 나는 부반장에 뽑혔다.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께서 반장이랑 같이 나를 부르셨다.

“우리 반에 내일 전학 오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 반장과 부반장이 잘 보살펴 줘. 놀리는 친구들에게서 잘 보호해 줘야 해. 심하면 선생님께 꼭 말해라.”

라고 하셨다.

교회 모임에서 지적 장애 오빠를 만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만큼 더 잘해 주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장애인 친구가 교실에 들어왔다. 이름은 하운이라고 하였다. 오빠처럼 지적 장애를 가진 친구였다. 잘 지내보자고, 이름이 예쁘다고 칭찬해 주었다. 아이들은 하운이에게 물려들어 이름이 무엇인지, 취미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하운이는 별 어려움 없이 대답하였다.

우리 반 친구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하운이에게 익숙해지자 짓궂은 남자아이들이 은근히 하운이를 놀리기 시작하였다. 하운이를 만지면 전염된다고, 더럽다는 말 등을 퍼트리는 아이도 있었다. 반장과 나는 그런 아이들을 혼내 주거나 하운이 곁에서 괴롭히면 안 된다는 눈치를 주기도 하였다.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남자아이를 혼내주게 하였다. 그래도 놀림이 계속되자 나는 아이들 앞에서 떨렸지만 큰 소리로 말하였다.

“애들아. 하운이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야. 사람끼리 서로 조금 다르다고 놀리는 것은 이상한 행동이야. 그러니까 놀리지 않고

하윤이와 친하게 지내면 좋겠어.”

이제 하윤이를 놀리거나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친구들이 많이 없다. 이제는 많은 친구가 하윤이를 도와주었다. 하윤이도 이런 생활을 즐겨워한다. 나도 즐겁다.

‘틀림’을 ‘다름’으로 차근차근 바꿔 나가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다.

글을 마치려고 하니 책의 마지막 한 문구가 떠오른다.

“누구나 살면서 적어도 한 번은 기립 박수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세상을 극복하니까.”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우리 모두 같이 살아가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